

임근춘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취임

고창=임용묵 기자 | 승인 2024.01.03 15:10



임근춘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

“공사의 3대 경영방향인 현장경영·사람경영·가치경영을 실현해 농어업·농어촌의 새로운 미래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.”

임근춘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이 지난 2일 취임했다.

임근춘 신임 지사장은 “고창군에서 농업과 지역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 한다”며 “현재 지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발판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미래농업 혁신을 선도할 농가 지원을 모색하겠다”고 밝혔다.

임 지사장은 1992년 입사해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완주 임실지사, 정읍지사, 동진지사에서 총무, 기획, 예산, 농지은행사업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업무 추진력과 직원들과의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전주 출신으로 영생고와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부장, 전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장을 역임했다.

임 지사장은 “고창지사가 도내에서 가장 근무하기 좋은곳, 변화와 혁신으로 직원들의 창의력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지사가 되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고창=임용묵 기자

저작권자 ©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고창=임용묵 기자